

유아의 사고능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임 호 찬

나사렛대학교 심리재활학과

본 연구는 영재성의 기초인 유아의 사고능력이 연령 별로 모의 양육태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S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등원하는 4~6세 유아 401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영재성 평가검사로 활용되는 레이븐 검사 시리즈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유아의 사고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레이븐 CPM 검사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 검사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밀관성 등 8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유아는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처벌, 감독 요인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고, 5세는 지지표현과 감독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세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처벌, 과잉기대가 사고력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영역별 정적 혹은 부적 효과를 논의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를 변화시켜 대응하는 것이 사고력 발달에 효과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제어: 사고능력, 레이븐 CPM, 부모양육태도, 유아

I. 서 론

개인의 영재성 발현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가능하지는

교신저자: 임호찬(hoelim@empal.com)

* 이 연구는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됨.

않다. 전통적으로 영재성을 지닌 아동들의 특성 중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특성으로는 창의적 사고를 가장 많이 거론하지만 부정적 특성으로는 고립적(isolate)이라는 명칭을 붙인다(Getzels & Jackson, 1962). Simonton(2000)은 창의적 사고를 지닌 아동들의 성격특성으로 비동조성, 비판습성, 독립성, 경험에 대한 개방, 높은 자아강도, 몰입, 모험 감수, 내성적 성격을 거론하였다. 창의적 사고를 지닌 아동의 고립적 특성이 성격연구로 이어지면서 여러 특성이 밝혀지게 되었다. 영재성을 보이는 아동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즐긴다거나 복잡한 개념 이해 및 무관한 개념들끼리 연관시키는 사고방식을 보인다(Palmer, 2006). 영재성 아동의 이런 특성들은 부모의 일방적인 양육태도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아동의 지적 성장 잠재력이 방해받을 우려도 있다.

대부분 유아들의 기초 인지능력은 학령기 전의 가정환경 요소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다소 강력한 주장도 있듯이(Bloom, 1964), 출생 후 유아들이 경험하는 가정환경은 사회경제적 여건 및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이 중에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인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인 잠재력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영재성 아동의 특성인 독립적인 생각이나 행동방식은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자녀의 지적잠재력 발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영아는 사람과 접촉하면서 신경회로가 자라고, 유전자가 발현되고, 감각-운동 기능을 형성해 나가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해 간다(Kuhn & Schanberg, 1998; Parker & Nelson, 2005). 출생이후 영아는 부모 및 주 양육자와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쾌와 불쾌를 함께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발전시키게 된다. 가령 모가 우울할 때는 영아들도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고 심장 박동도 증가함으로써 불안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Weinberg & Tronick, 1996). 나아가 아동기에 자기 조절

력이 낮아지고, 학업성적도 낮아지고 감정적 유대감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nes, Field, & Davalos, 2000). 출생 당시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자극은 즐거움 대 슬픔이라는 단순 감정으로 구분되지만, 차츰 성숙해가면서 복잡한 감정으로 세분화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인지능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데, 기억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낮가림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형식적 조작능력까지 세분화되어 간다.

Piaget가 언급한 형식적 조작능력은 추론적 사고를 의미하는 데, 이것의 발원은 감각-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간단한 인지에서 부터 시작된다. 사고능력의 근간인 인지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논쟁거리이지만(Kagan, 1994), 대략 세마(schemata), 심상(images), 개념(concepts), 명제(propositions)라고 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아의 인지능력과 가족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Zajonc과 Markus(1976)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영·유아와 상호 작용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자녀의 인지능력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합류점 이론(confluence theory)을 제안하였다. Caldwell(1968)은 가족의 영향력을 6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했는데, (1)모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2)제한설정과 처벌을 피하는 정도; (3) 물리적환경의 조직화 정도; (4)적합한 놀이재료의 제공정도; (5)자녀에 대한 모의 관여정도; (6)일상생활에서 경험시키는 자극의 종류로 나누었다. 이상의 6가지 요인과 스펀포드 비네 지능검사점수 간에 상관연구를 36개월 유아들에게 실시한 결과 유아지능을 약 29%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Elardo, Bradley, and Caldwell, 1975). 그러나 최근에는 결정적 시기개념이 주춤하면서, 인지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훨씬 더 길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인지능력의 상관성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지능의 유전적 영향은 유아기 보다는 청소년 후반기에 더 큰 영향을 보였다(Plomin, Fulker, Corley, & DeFries, 1997).

인지능력 곧 지능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경험을 기초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억하고 정리해 나가는 영역특수적인 지능이

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사고과정 및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지능이다. 가령 웨슬러 지능검사는 언어성과 동작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언어성은 주로 경험의 양을 많이 측정하는 것이다. 학업 성적을 예측하는 요소로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 29% 정도 기여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15%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ncan, Featherman, & Duncan, 1972). 형제관계도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흑인가족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 중에는 둘째의 지능이 더 높으며, 둘 사이에 나이차이가 한살씩 벌어질 때마다 지능지수 1.42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1977). 그러나 백인가족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즉 백인가족은 자녀에 대한 지적자극을 부모가 할 수 있지만, 흑인가족 경우는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형의 자극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셈이다. 이 결과는 가족간의 의사소통 정도가 아동들의 지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Diana Baumrind(1968, 1971, 1991a, 1991b)는 장시간동안 부모양육 태도와 자녀(3세부터 15세까지)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7가지 양육태도, 즉 (1) 권위적인(Authoritative), (2) 민주적인(Democratic), (3) 비지시적인(Non-directive), (4) 독재적-지시적인(Authoritarian-Directive), (5) 비독재적-지시적인(Nonauthoritarian-Directive), (6) 무관심(Unengaged), (7) 충분히 좋은(Good Enough)로 구분하게 되었다. 부모양육이 엄하고 일관적이면서도 온화하고 지지적인 특성으로 조합(권위적인 양육태도로 분류됨)되었을 경우에 자녀들의 적응력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과 상관연구를 한 결과 충분히 좋은 양육방식이 아동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육태도는 모든 양육방식 영역에서 적당한 점수를 골고루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무관심한 양육방식은 아동의 학업성적이나 사회적응에 가장 나쁜 발달을 초래하였다.

이후 Baumrind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적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여기서 충분히 좋은 양육태도는 복합적 점수요인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연구하

였다. 그 결과 SAT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비지시적인 양육태도였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독재적-지시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점(GPA)은 양육태도와 다른 연관을 보였는데, 남학생은 권위적인 양육태도 집단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지만 여학생은 비지시적인 양육태도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Weiss & Schwarz, 1999). Baumrind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슷하게 밝혔지만, 여아는 비지시적인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양육태도에서도 공히 남아보다 산수와 언어성취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아마 남아의 지적 잠재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규칙과 행동 제한을 좀 더 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Weiss & Schwarz, 1999). 이 결과는 자녀의 성취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부모양육태도를 다르게 해야만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지능검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웨슬러 검사는 경험의 양을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검사이다. 그러나 1983년에 출간된 카우프만 지능검사는 지능을 정보처리 유형으로 이해하면서 순차적인 정보처리 능력과 동시적인 정보처리 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언어성 영역을 지능으로 보기 보다는 습득도 즉 성취수준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측정하고 있다(문수백, 변창진, 2002). 그러나 영국에서 출간된 레이븐(Raven)지능 검사는 위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르게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일반지능의 요인을 잘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dy, 1992; 임호찬, 2003). 레이븐 검사는 문제난이도를 달리한 4 종류의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사고력을 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Raven, Raven, and Court, 1998).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고능력이 부모의 어떠한 양육태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밝혀보려고 하였고, 나아가 연령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양육태도가 있을 수 있는 지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3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유아원에 재원 중인 4~6세 유아 401명이었다. 피험자들은 S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등원하는 유아와 그 어머니였으며, 이중에 4세는 61명, 5세는 163명, 6세는 177명이었다. 유아의 사고능력 검사는 해당 학급 교사가 직접 하였으며, 어머니 양육태도 검사는 사전에 연구계획을 통보한 각 가정에 보내어 완전하게 답을 해 준 경우에만 자료로 활용하였다. 성실하게 반응을 해 준 어머니의 피험자는 4세 53명, 5세 138명, 6세 129명으로 총 320명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유아의 사고능력 검사지

본 연구에 사용한 유아의 사고능력 검사는 K-Raven 유아용 비언어성 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세 가지 세트[A, Ab, B]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트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되어있으며 B세트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 부과는 전체 피험자의 문항별 정답률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맞춘 문항(난이도 최저)은 가중치 “1”을 주고 가장 적게 맞춘 문항(난이도 최고)은 가중치 “2”를 주어서 변환시켰다. 이 검사의 검사연령은 33개월~104개월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하위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0.74$ 였으며, 영국 등에서는 $r=0.68 \sim r=0.90$ 까지 보고되어 있다. 내적 일관성은 사전검사 $r=0.83$ 과 사후검사 $r=0.89$ 로 보고되었다(임호찬, 2004).

나. 모 양육태도 검사지

부모 양육태도 검사지는 허묘연(1999)의 검사내용을 수정하여 참고하였고, 또 손남숙, 이숙희(2008)가 사용한 검사를 새롭게 요인 분석하여 작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전체 요인은 8개이고, 총 문항은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 8가지는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요인에 대하여 질문상황을 근거로 새롭게 명명된 것이다. 이 요인은 지지표현(supportive expression), 합리적 설명(rational explanation), 성취압력(achievement press), 간섭(high involvement), 처벌(punishment), 감독(superintendence), 과잉기대(high expectation), 비일관성(inconsequence)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는 허묘연(1999)과 손석한 등(2001) 등에서 사용한 요인명칭을 2개는 변경하고 1개는 수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앞의 두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에게 부모양육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평가하는 상황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요인명칭이 부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격한 어휘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원래 요인명은 확대와 방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처벌과 비 일관성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애정은 지지표현으로 변경하였다. 요인 명칭 중에 이해가 다소 어려운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대해서 실제 압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또래와의 상대적 평가 결과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일관성은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처벌과 보상이 주어지는 정도를 부모 스스로 평가하게 한 것이다. 이 검사의 내적 일관성은 과잉기대 $r=.57$ 부터 합리적 설명 $r=.85$ 까지 보고되었다(임호찬, 2008). 각 문항의 점수는 최하 0점에서 5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먼저 모의 양육태도검사 요인과 사고력 점수 총점 및 하위 세트 A, Ab, B문제에서 획득한 점수 간에 상관을 분석하였다. 다음에 유아의 사고력 점수 총점과 하위 세트 수행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태도 요인에 적절한 비율 값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요인점수를 사분위로 나누어서 상-중상-중하-하 집단으로 나누는 다음에 사고력 총점수와 하위 세트 수행점수를 다변량분석하였다. 이때 모의 점

수가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다. 유아의 사고능력을 알아보는 연구가 부족하여서 여기서는 탐색적 연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수준을 $p < .10$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다회귀 분석 절차로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시에 양극단의 값을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사례수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III. 결 과

1. 모의 양육태도와 사고력 간의 연관성

<표 1>은 유아 연령별로 양육태도 요인과 사고력 하위유목 점수 및 총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지지표현 점수는 연령수준에 따라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4세와 6세 경우는 지지표현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4세, $r(53) = -.241$, $p < .05$; 6세, $r(129) = -.195$, $p < .05$], 5세 경우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5세, $r(138) = .153$, $p < .05$]. 즉 4세와 6세 유아는 모의 지지표현이 높을수록 총 점수는 낮아지고, 반대로 5세는 모의 지지표현이 높을수록 총 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 간에 상관관계의 차이도 엿볼 수 있는데, 문제난이도는 B가 제일 높고 다음에 Ab, A 순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4세는 지지표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인 B의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p < .10$), 다음에 어려운 문제인 Ab의 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아졌다($p < .05$). 6세는 지지표현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쉬운 A 점수($p < .01$)와 Ab 점수($p < .05$)가 낮아졌다. 그러나 5세는 지지표현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인 B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1> 모의 양육태도와 하위영역 문제해결 점수 간의 상관관계

양육태도 요인		총 점수	A 점수	Ab 점수	B 점수
지지표현	4세(n=53)	-.241**	-.111	-.245**	-.196*
	5세(n=138)	.153**	.087	.070	.185**
	6세(n=129)	-.195**	-.211***	-.179**	-.098
합리적 설명	4세(n=54)	-.257**	-.038	-.250**	-.277**
	5세(n=138)	.122*	.087	.062	.131*
	6세(n=129)	-.155**	-.120*	-.142*	-.100
성취압력	4세(n=54)	.003	-.070	.091	-.052
	5세(n=139)	.050	.158**	-.053	.054
	6세(n=129)	.082	-.034	.105	.079
간섭	4세(n=53)	.117	-.038	.091	.185*
	5세(n=139)	.036	.131*	.059	-.050
	6세(n=129)	-.015	-.034	-.015	-.031
차별	4세(n=53)	-.092	-.360***	-.047	.077
	5세(n=139)	-.050	.012	.019	-.116*
	6세(n=129)	.083	-.014	.114	.065
감독	4세(n=54)	-.207*	-.048	-.219*	-.191*
	5세(n=139)	-.120*	-.065	-.070	-.135*
	6세(n=129)	-.125*	-.131*	-.070	-.095
과잉기대	4세(n=54)	.084	.000	.068	.114
	5세(n=139)	-.100	-.025	-.137*	-.062
	6세(n=129)	-.101	.046	.030	-.211***
비일관성	4세(n=54)	.190*	.050	.253**	.113
	5세(n=139)	-.038	-.036	-.016	-.060
	6세(n=129)	-.012	.029	-.040	-.007

* $p < .10$, ** $p < .05$, *** $p < .01$.

합리적 설명 점수는 지지표현 점수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5세의 총점수는 정적인 상관의 경향성만 보였다($p < .10$). 성취압력은 오직 5세 유아의 A 점수하고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139) = .158$,

$p<.05$]. 이는 성취압력 점수는 다른 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5세 유아의 쉬운 문제 해결력 즉 A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없었고, 다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였다. 즉 모의 간섭이 높을수록 4세 유아의 B점수가 높아지고 ($p<.10$), 5세 유아의 A점수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10$).

모의 처벌 점수가 높을수록 4세 유아의 A 점수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53)=-.360, p<.01$). 5세 경우는 처벌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인 B의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p<.10$). 감독점수는 통계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영역이 많았다. 감독점수가 높을수록 전 연령의 총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10$). 특히 4세와 5세 유아는 어려운 문제인 B 점수가 많이 낮아졌지만, 6세는 쉬운 문제인 A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과잉기대 점수도 부분적으로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5세는 모의 과잉기대 점수가 높을수록 Ab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p<.10$), 6세는 어려운 문제인 B 점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r(129)=-.211, p<.01$). 비밀관성은 오직 4세 유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모의 비밀관성 점수가 높을수록 4세 유아의 Ab 점수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54)=.253, p<.05$). 4세 유아의 총점수와는 정적상관의 경향성을 보였다($p<.10$).

2. 모의 양육태도와 사고력 간의 중다회귀분석

<표 2>에는 유아의 하위문제 수행력 즉 사고력 총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모의 양육태도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인을 총점수로 하여 연령별 설명인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세 경우는 양육태도 중에 합리적 설명 변인이 14.7% [$t=-3.50, p<.01$]를 처벌이 5.7% [$t=-1.89, p<.10$]를 설명하여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설명하면 두변인의 B 계수가 모두 “-”이므로 사고력 총 점수는 합리적 설명 및 처벌과 부적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의 4세 유아는 총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처벌도 많이 할수록 총 점수

는 낮아지지만 그 영향은 통계적 경향성 정도만 나타났다.

<표 2> 모의 양육태도와 사고력 총점수 간의 중다회귀분석

집단	변인	총 점수(DV)					
		R ²	B	표준오차	Beta	df	t
4세	Constant		160.92	13.51			
	합리적 설명	.147	-1.58	.45	-.48	2/49	-3.50***
	차별	.204	-1.02	.54	-.26		-1.89*
5세	NS						
6세	Constant		133.63	8.64			
	지지표현	.047	-.55	.22	-.22	1/127	-2.51**

* $p < .10$, ** $p < .05$, *** $p < .01$.

5세는 총 점수 예측변인이 없었고, 6세는 지지표현이 사고력 총점수를 약 4.7% [$t = -2.51, p < .05$] 설명해 주지만, 그 방향은 지지표현 점수가 높을 수록 총점수는 낮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3> 모의 양육태도와 사고력 A 점수 간의 중다회귀분석

집단	변인	A 점수(DV)					
		R ²	B	표준오차	Beta	df	t
4세	Constant		10.62	.92			
	차별	.110	-.31	.09	-.52	2/49	-3.52***
	비일관성	.211	.27	.11	.37		2.51**
5세	Constant		10.43	.55			
	성취압력	.023	.08	.05	.15	1/135	1.77*
6세	Constant		14.82	1.36			
	지지표현	.045	-.08	.03	-.21	1/127	-2.44**

* $p < .10$, ** $p < .05$, *** $p < .01$.

<표 3>은 하위영역의 문제 중에 A 점수의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 양육태도 변인을 다중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4세 유아의 A 점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차별이 11% [$t = -3.52, p < .01$]였으며, 비일관성은 10.1% [$t = 2.51,$

$p<.05$]로 나타났다. 여기서 처벌점수는 A 점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비일관성 점수는 A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비일관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 이지만, 어린 4세 유아는 일종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A 유형의 문제는 비교적 잘 해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지만 신체적 위해를 느끼는 처벌은 유아에게 과잉경각심을 일으켜서 쉬운 문제도 틀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5세 유아는 성취압력이 A 점수를 2.3% [$t=1.77, p<.10$] 정도 설명하지만, 이 정도는 통계적 경향성에 불과할 만큼 미미하다. 이 결과는 5세 경우에 모의 성취압력은 A 점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의 A 점수는 지지표현이 4.5% [$t=-2.44, p<.0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베타 계수가 “-”의 방향임으로 지지표현 점수는 A 점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세와 6세의 결과는 회귀분석에서 권고하는 10% 이상의 비교적 강력한 설명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표 4> 모의 양육태도와 사고력 Ab 점수 간의 중다회귀분석

집단	변인	Ab 점수(DV)					
		R^2	B	표준오차	Beta	df	t
4세	Constant		16.54	3.01			
	합리적 설명	.112	-.30	.12	-.33	1/50	-2.51**
5세	NS						
6세	Constant		17.51	1.96			
	지지표현	.032	-.10	.05	-.18	1/127	-2.05**

* $p<.10$, ** $p<.05$, *** $p<.01$.

<표 4>는 Ab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변인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4세 유아는 합리적 설명이 11.2% [$t=-2.51, p<.05$]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합리적 설명점수가 높을수록 4세 유아의 Ab 점수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는 유의한 설명변인을 찾을 수 없었고, 6세 유아는 지지표현이 3.2% [$t=-2.05, p<.05$] Ab 점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지표현이 많을수록 Ab 수행점수는 낮아졌다.

<표 5> 모의 양육태도와 사고력 B 점수 간의 중다회귀분석

집단	변인	B 점수(DV)					
		R ²	B	표준오차	Beta	df	t
4세	Constant		13.94	2.62			
	합리적 설명	.131	-.28	.10	-.36	1/50	-2.74***
5세	Constant		12.08				
	지지표현	.034	.23	.09	.22	2/134	2.56**
	감독	.064	-.53	.26	-.18		-2.08**
6세	Constant		17.97	2.74			
	과잉기대	.045	-.38	.13	-.26	2/126	-2.88***
	합리적 설명	.071	-.17	.09	-.17		-1.90*

* $p < .10$, ** $p < .05$, *** $p < .01$.

<표 5>는 사고력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B 점수를 설명하는 양육태도 변인을 정리하였다. 4세는 합리적 설명이 13.1% [$t = -2.74, p < .01$]로 유의미하게 B 점수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할수록 B 점수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연관되었다. 5세는 지지표현 [$t = 2.56, p < .05$]과 감독 [$t = -2.08, p < .05$]이 합쳐서 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지표현 점수는 높을수록 B 수행점수를 높이는 방향이고, 감독 점수는 높을수록 B 수행점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6세는 과잉기대 [$t = -2.88, p < .01$]와 합리적 설명 [$t = -1.90, p < .10$]이 B 점수를 7.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과잉기대를 많이 할수록 B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도 낮아지지만 통계적 경향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3. 사분화한 양육태도 점수에 따른 사고력 점수 간에 연관성

양육태도 변인 별로 바람직한 점수대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의 양육태도 원 점수 기준으로 사분위로 나누었다. 양육태도 하위영역에서 동일 점수를 얻은 피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획구분의 피험자 수에 차이가 있다.

자료분석은 먼저 지지표현 점수에 따른 다변량 분석을 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사후검증(Scheffe)을 하였다. 기술을 간편하기 위하여 가장 상위

점수 집단을 1집단, 그 다음 순서대로 2집단, 3집단, 4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는 차이가 나지 않은 합리적 설명, 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은 제시하지 않았다. <표 6>은 지지표현과 사고력 점수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표 6> 지지표현 사분위에 따른 사고력 점수 평균값 (Scheffe검증)

지지표현	N	총 점수	A 점수	Ab 점수	B 점수	
4세	1(상)	16	24.80	10.18	8.23	6.40
	2	12	27.60	11.50	9.21	6.88
	3	11	25.40	11.00	8.40	5.99
	4(하)	14	29.94	10.85	10.79	8.29
5세	1	25	34.08	11.21	12.36	10.50** ¹³
	2	41	31.39	11.79	11.39	8.21
	3	35	30.26	11.35	11.32	7.59** ¹³
	4	36	30.95	11.18	11.65	8.11
6세	1	18	34.45	11.70	12.90	9.84
	2	44	35.22	10.86** ¹⁴	13.40	10.96
	3	24	36.50	11.72	13.11	11.66
	4	43	36.75	12.03** ¹⁴	14.08	10.63

** $p < .05$. 첨자는 집단간 차이를 의미.

그 결과 4세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고, 5세는 B 점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집단이 3집단보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B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F(3/134)=3.77, p < .05$]. 그러나 6세의 경우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지지표현 점수가 제일 낮은 4집단이 2집단보다 A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3/125)=4.14, p < .01$]. 이 결과는 아마도 5세 유아는 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문제집중력이 좋고 나아가 지능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세 경우에는 지지표현이 적은 모의 자녀가 가장 쉬운 문제인 A 점수가 오히려 높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논의사항으로 생각된다.

<표 7> 성취압력 사분위에 따른 사고력 점수 평균값 (Scheffe검증)

성취압력	N	총 점수	A 점수	Ab 점수	B 점수	
4세	1(상)	12	26.50	10.90	9.62	5.97
	2	8	26.58	9.36 ^{*24}	9.38	7.83
	3	15	26.53	10.81	8.51	7.20
	4(하)	19	27.32	11.29 ^{*24}	9.19	6.83
5세	1	24	31.23	11.62	11.08	8.52
	2	32	31.48	11.73	11.61	8.12
	3	24	30.28	11.46	10.95	7.87
	4	59	31.70	11.05	11.96	8.68
6세	1	37	37.11	11.55	14.12	11.43
	2	33	35.12	11.49	13.15	10.48
	3	20	34.59	11.24	12.90	10.43
	4	39	35.95	11.68	13.52	10.74

** $p < .05$. 첨자는 집단간 차이를 의미.

<표 7>에는 성취압력에 따른 사고력 점수를 제시하였는데, 4세 유아의 A 점수에서만 4집단이 2집단보다 다소 높은 통계적 경향성을 보였다($p < .10$).

<표 8> 처벌점수 사분위에 따른 사고력 점수 평균값 (Scheffe검증)

처벌	N	총 점수	A 점수	Ab 점수	B 점수	
4세	1(상)	15	25.38	9.78 ^{**13}	8.36	7.23
	2	7	23.48	9.92	8.04	5.51
	3	18	30.10 [*]	11.60 ^{**13}	10.79 [*]	7.71
	4(하)	13	24.74	11.07	7.86	5.77
5세	1	27	31.31	11.42	12.21	7.68
	2	38	29.77	11.35	10.71	7.69
	3	34	31.77	11.39	11.62	8.75
	4	40	32.42	11.35	11.85	9.20
6세	1	33	35.86	11.48	13.95	10.42
	2	31	37.85	11.44	13.78	12.62 ^{**23}
	3	38	34.67	11.59	13.08	9.99 ^{**23}
	4	27	35.25	11.59	13.23	10.42

^{*} $p < .10$ ^{**} $p < .05$. 첨자는 집단간 차이를 의미.

<표 8>은 처벌점수 사분위에 따른 사고력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A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F(3/49)=3.92, p<.05]$, 3집단이 처벌이 높은 1집단보다 더 나은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총점수와 Ab 점수에서는 각각 통계적 경향성만 보였으나, 3번 집단의 수행이 가장 높았다($p<.10$). 그리고 6세에서는 B 점수에서 2집단이 3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F(3/125)=3.90, p<.05]$.

<표 9> 감독점수 사분위에 따른 사고력 점수 평균값 (Scheffe검증)

감독	N	총 점수	A 점수	Ab 점수	B 점수	
4세	1(상)	23	25.28	10.78	8.39	6.09 ^{**13}
	2	16	26.89	10.74	9.16	6.99
	3	6	30.13	10.64	10.25	9.23 ^{**13}
	4(하)	6	27.46	11.13	10.17	6.15
5세	1	61	31.23	11.34	11.60	8.28
	2	36	31.01	11.28	11.43	8.29
	3	27	30.98	11.50	11.32	8.15
	4	15	33.05	11.53	12.07	9.44
6세	1	54	35.58	11.43	13.53	10.61
	2	30	35.26	11.38	13.20	10.68
	3	24	35.75	11.36	13.36	11.01
	4	21	37.56	12.17	14.02	11.36

* $p<.10$ ** $p<.05$. 첨자는 집단간 차이를 의미.

<표 9>의 감독점수에서는 4세 유아의 B 점수에서 3집단이 1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F(3/50)=3.02, p<.05]$. 즉 감독을 중하정도로 하는 3집단 모의 유아들이 가장 높은 감독을 하는 1집단의 자녀보다 사고력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먼저 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태도 첫번째 하위유형인 지지표

현 점수는 4세와 6세의 전체 사고능력 점수와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5세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미한 상관의 근원을 세밀하게 따져보면, 4세는 지지표현이 많을수록 비교적 어려운 문제인 Ab와 B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6세는 쉬운 문제인 A와 Ab에서 점수가 낮아졌다.

이 결과를 해석하기는 아주 조심스러운데, 우선 4세 유아는 모의 지지표현이 많을수록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건성으로 사고하면서 포기하는 경향이 점수로 반영된 것이고, 반면에 6세는 쉬운 문제에서 방심한 결과 틀리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5세는 모의 지지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인 B의 수행점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표 6> 참조), 연령에 따른 적절한 지지점수 수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즉 5세는 지지표현이 가장 높은 1집단이 B 점수에서 10.50으로 가장 높았지만, 6세는 지지표현이 가장 낮은 4집단이 A 점수에서 12.03으로 가장 높았다. 즉 6세 경우는 모의 지지표현이 적을수록 쉬운 A 문제 해결과정에서 실수를 적게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도 6세의 사고력 총점수는 지지표현이 가장 중요한 설명인자로 나타났는데, 그 방향은 부적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6세는 지지표현이 높을수록 전체점수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5세는 지지표현이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은 B 문제해결을 잘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모의 지지표현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양육태도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즉 4세 경우에는 지지표현을 적게 하고, 5세에는 아주 많이 하고, 6세에는 5세 때보다는 조금 줄이는 것이 사고력 발달을 자극하는 요소로 볼 수 있겠다.

두번째 합리적 설명도 지지표현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합리적 설명은 자녀를 훈육할 때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해주려는 방식인데 4세 경우는 Ab와 B 점수가 낮아졌고, 6세는 A와 Ab 점수가 낮아졌지만 10%의 경향성만 보였기 때문에 지지표현만큼 강력한 요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의 연구 결과는 6세 유아 경우는 모가 지지표현이나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해줄 경우에 쉬운 난이도에서 틀리는 경향이 증가함은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바람직한 양육태도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는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취압력 점수는 5세에서 A점수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중다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는데(<표 3> 참조), 즉 5세는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비교적 쉬운 A문제는 잘 푸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4세인 경우는 성취압력이 가장 낮은 4집단의 자녀가 A 점수가 가장 높았다(<표 7> 참조). 본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성취압력은 4세에서 6세로 갈수록 조금씩 올리는 것이 사고력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간섭점수는 명백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경향성만 보였는데, 간섭이 높을수록 4세는 B 그리고 5세는 Ab 와 정적인 상관을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4세와 5세 유아에게는 모의 간섭이 문제해결 능력에 지원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처벌점수는 4세 유아의 A점수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5세의 B 점수와 부적상관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즉 4세 유아는 모의 처벌이 심할수록 쉬운 문제인 A를 많이 틀린다는 의미인데, 아마도 불안 가중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세는 어려운 문제인 B 점수도 낮추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양육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8>의 사분위에 따른 다변량 분석값을 보면 좀 더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4세는 처벌이 중하인 3집단에서 A 및 Ab 수행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6세는 처벌이 중상인 2집단에서 B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적절한 본 양육태도 검사에서 적절한 처벌점수는 4세는 25~50%이고 6세는 50~75%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다.

감독점수는 통계적 경향성만을 보였는데 4세, 5세, 6세 공히 부적상관을 보였다. 사분위 분석결과를 보면(<표 9> 참조), 4세는 감독이 중하정도인 3집단에서 B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4세는 25~50% 수준이 좋다는 의미이고,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5세와 6세는 A, Ab, B 모든 점수에서 골고루 높은 4집단 즉 25%이하 집단이 이상적인 점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과잉기대 점수는 6세 유아의 B점수를 유의미하게 낮추었고, 5세의 Ab

점수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표 5>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6세의 B점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과잉기대와 합리적 설명으로 나타났는데, 두 요인 모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6세는 모의 과잉기대를 느낌으로 전달받는 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긴장으로 작용하여 수행력을 낮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 설명은 과잉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부적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6세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비일관성 점수는 4세 유아의 Ab 점수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비일관성은 모의 훈계나 처벌이 기분에 좌우되는 성향을 의미하는 데, 4세 유아는 모의 비일관성 태도에 더 많은 긴장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사고력 검사 중에 문제 B가 가장 어려운데 이 점수를 설명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살펴보면(<표 5> 참조), 4세는 합리적 설명이 가장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 설명이 4세 유아 입장에서는 허용에 가까운 의미를 시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나친 허용은 어려운 문제에서 사고 중단을 의미할 수도 있어 보인다. 5세는 감독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지표현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는 과잉기대가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 설명이 두번째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양육태도 점수는 Baumrind가 지적했듯이 각 요소의 적절한 값이 있을 것인데 본 연구에서도 2차함수를 가정하고 분석해보았으나 유의미한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안으로 사분위로 구획하여 분석한 결과 지지표현, 성취압력, 처벌, 감독에서 몇 가지 시사점이 얻어졌다. 사분위로 구획한 점수의 안정된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사례와 함께 양육태도 검사의 하위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도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유아의 지능발달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찾는 연구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 고 문 헌

- 문수백, 변창진 (2002). **K-ABC 해석요강**. 서울: 학지사.
- 손남숙, 이숙희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만 4세-6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 49-77.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욱,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 605-615
- 임호찬 (2003). 지능검사 평가치의 상호비교: Wechsler, K-ABC, Raven 지능검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 연구*, 19, 121-134.
- 임호찬 (2004). 한국판 레이븐 지능검사. CPM 지침서. 서울: 한국가이던스.
- 임호찬 (2008). 부모양육태도검사. 서울: Mindpress.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Baumrind, D. (1968).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Monographs* (Part 2), 4, 99-102.
- Baumrind, D. (1991a).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56-95.
- Baumrind, D. (1991b).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746-758. In R. Learner, A. C. Petersen, and J. Brooks-Gunn (Eds.), *The Encyclopedia on Adolescence*. New York: Garland.
- Bloom, B. 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Wiley.
- Brody, N. 1992. *Intelligence*. San Diego: Academic Press.
- Caldwell, B. M. (1968). *On designing supplementary environments for early child development*. BAEYC Reports. Bosto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October, 1-11.
- Duncan, O. D., Featherman, D. L, and B. Duncan. (1972).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achievement*. New York: Seminar Press.
- Elardo, R., R. Bradley, and B. M. Caldwell. (1975).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 to mental test performance from six to thirty-six months: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4, 71-76.

- Getzels, J. W., and P. W. Jackson. (1962). *Creativity and Intellig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Jensen, A. R. (1977). Cumulative deficit in IQ of blacks in the deep s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13. 184-191.
- Jones, N. A., T. Field, and M. Davalos. (2000). Right frontal EEG asymmetry and lack of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0. 189-204.
- Kagan, J. (1994). *The generation of thought*. pp. 185-239. In J. Kagan (Ed.), *The nature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Kuhn, C. M., and S. M. Schanberg. (1998). Responses to maternal separation: Mechanisms and medi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Neuroscience*, 16. 261-270.
- Palmer, D. (2006). *Parent's guide to IQ testing and gifted education*. Longbeach: Parent guide books.
- Parker, S. W., and C. A. Nelson. (2005). The impact of deprivation on the ability to discriminate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An event-related potential study. *Child Development*, 7. 54-72.
- Plomin, R., D. W. Fulker, R. Corley, and J. C. DeFries. (1997). Nature, nurture, and cognitive development from 1 to 16 years: a parent-offspring adoption study. *Psychological Science*, 8. 442-447.
- Raven, J., J. C. Raven, J. H. Court. (1998). *Raven manual: General overview*. Oxford: OPP.
- Simonton, D. K. (2000). Creative development as acquired expertise: theoretical issues and an empirical test. *Developmental Review*, 20. 283-318.
- Weinberg, M. K., and E. Z. Tronick. (1996). Infant affective reactions to the resumption of maternal interaction after the still-face. *Child Development*, 67. 905-914.
- Weiss, L. H., and J. C. Schwarz.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s and older adolescents' personality,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and substance use. In A. Slater, and D. Muir (Eds.), *The Blackwell Reader in Development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Zajonc, R., and G. B. Markus. (1976).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82. 74-88.

= Abstract =

Effects of the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Thinking Ability

Ho-Chan Lim

Dep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Associate Prof. at Nazarene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thinking ability which is based on the genius and the parenting attitude according to their level of age. There were 401 subjects includi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who lived in Seoul city ages from four to six. The Raven CPM testing method for children and the parenting attitude test were used as research tools. Subcategories of the parenting attitude test consisted of the supportive expression, the rational explanation, the achievement press, high involvement, punishment, superintendence, high expectation, and inconsequence. Results showed that by age four children's thinking abilities were affected by the rational explanation, the achievement press, punishment, and superintendence. At age five, the supportive expression and superintendence were important factors to the thinking ability. By age six children were affected by the supportive expression, the rational explanation, punishment and high expectation. It was also discussed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the parenting attitude subscales to the development of the thinking ability. These results showed the parenting attitudes need to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hild's age for getting more reasonable results to their children's thinking ability.

Key Words: Thinking ability, Raven CPM, Parenting attitude, Children

1차 원고접수: 2008년 11월 7일 수정원고접수: 2008년 12월 11일 최종게재결정: 2008년 12월 26일
